

〈時 論〉

漢江綜合開發에 거는 期待

崔 榮 博*

80년대의 서울 靑寫眞의 핵심을 이루는 漢江 종합개발사업은 우리나라 하천계획에 대한 새로운 挑戰으로 자못 기대되는 바가 많다. 현재까지의 近代化 過程에서 漢江 상·중류부에는 昭陽江다목적댐을 비롯한 6개의 水力에너지 및 用水供給源의 댐이 建設되는 등 治利水置重의 漢江水資源개발이 추진되어 다대한 물의 이용효과를 가져와 漢江유역의 생산 및 생활터전 형성에 큰 기여를 한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반면에 漢江 하류연안, 특히 首都서울을 관류하는 36km의 漢江은 예로부터 山紫水明으로 자랑된바 있으나 서울의 인구집중, 過密化와 여러 社會資本시설의 集積化 된 근대적인 도시개발로 河川의 양상은 일변하였다. 都市用水공급의 多岐多量 사용하는 용수공급의 급속한 不足과 함께 하수·폐수의 다량 河川流入, 콘크리트 고층건물과 地下鐵건설 등에 의한 漢江河床의 골재용 모래·자갈의 亂掘, 쓰레기·분뇨의 投棄로 河床은 無機有機物の 堆積장이 되었으며 지난날 수영하고 낚시할 수 있는 清流는 볼 수 없게 汚濁化하여 옛 모습을 찾아 볼수가 없다.

거기에다 연례적인 강마철의 집중호우에는 고층건물과 포장된 도로화에다 低地의 무모한 토지개발이나 매립 등으로 自然의 遊水池가 없어져 물이 滯水될 공간이 없게된 까닭에 漢江에의 出水가 신속하게 되고 또한 그 流量도 많아져서 低地주택가는 內水浸水제해를 입게 마련이었다. 그래서 首都서울의 都市河川都로서의 漢江은 글자 그대로 「죽음의 江」「버려진 江」으로 취급되어 시민들에게 경종을 울린지 오래이다.

漢江은 서울시민에게 들도 없는 생명수의 공급원이다. 이렇게 볼 때 洪水문제 河川空間의 이용, 토지이용면에서 高水敷地(洪水터) 활용등으로 多元의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여기다 보태어서 水質오염방지를 위한 하수 처리장의 신설 등

의 汚濁源 대책을 촉진시키는것 외에 淨化用水의 도입, 河床汚泥의 준설 등 하천정화대책도 함께 실행하여야 하겠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수방재 대책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기상조건에서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연중행사처럼 찾아온다. 우리나라 首都서울에는 被災대상인 人口·資産이 집적이 막중하고 하천홍수에 의한 水害위험 資産이 絕對額은 나날이 增加하고 있다. 이래서 홍수에 대한 이론적 水理計算의 電算化로 장래 대책을 수립하는데 여러가지로 응용되고 있지만 漢江 洪水流의 物理模型으로 장래를 예측하는 水理실험은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 민주사회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舉國적으로 진전하고 있는 이 단계에 무엇보다도 새로운 河川改修計劃인 漢江 하류종합개발은 시민참여로서의 漢江복원을 지향하는 새로운 서울도시건설을 위한 과감한 계획이며 하천부지의 自然環境을 보전 회복하고 하천주변이 美的 景觀을 창조하고 또한 「물의 公園」으로 이른바 河道정비에 의한 고수부지의 활용운동장·산책로·아동공원·山林공원·잔디공원·주차장·자전거도로·낚시터)은 시민과 하천사이의 親近感을 증진시켜 自然環境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는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와같은 都市公園으로서 하천부지 활용은 戰時나 非常時의 緊急待避地로서 우리의 안보입장에서도 유익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같은 시설물개발에 있어서는 漢江 상·하류 및 대안에 대한 배리를 잘하여 고수부지 이용을 서두르는 결과로 低水路가 제방에 근접하고 있는 대안의 護岸을 충분히 잘 공사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대도시는 도시에 殘存하는 귀중한 自然空間인 하천 환경정비가 긴급과제로 취급되어 왔다. 도시 하천수가 汚濁되고 하천부지가 사막과같이 조잡하게

* 本學會顧問 水原大學長 工博 技術士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뜻에서 서울시의 漢江종합개발은 河川환경개선책으로 晩時之嘆이 있으나 所望스러운 것이다. 漢江을 정화하자면 상·중류의 도시하수도 완비가 급선무이다. 앞으로는 이밖에도 상·중류 각법에 하천정화를 위한 稀釋用水를 활용하기 위하여 그 분담을 고려하는 것도 獎勵하여 수질의 개선을 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先進歐美 국가에 비하여 도시공원의 정비가 매우 뒤져 있다.

근자 「都市水害」의 대부분은 人災라고 할만큼 많은 문제들이 개재하고 있다. 예컨대 무질서한 도시화·朝令暮改의 도시계획이 추진되어 무책임하게 시공된 택지조성이나 토지개발이 水害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도시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防災체제가 계획정비되기전에 도시화가 진행된 결과라고 본다.

이때까지 도시계획이 가장 중요한 水害防止의 실패는 경시하고 河川관계자를 도시계획의 증추에 참가시키지 않고 주택이나 도로등을 우선한데서 都市水害의 激化를 가져왔다고 보며 이래서 水災를 人災라고 한 것이다.

앞으로 서울은 漢江을 중심으로한 防災의 관점에서 도시건설에 전력을 다할 것을 부탁하며 이와 같은 입장에서 서울의 청사진에서 綜合漢江 개발을 핵심으로

한것은 종래의 도시계획방향의 일대 전환으로 보고 싶다.

여기에 첨가하고 싶다면 漢江의 低地 침수방지를 위하여 多目的 遊水地의 구상을 제안하고 싶다.

즉, 市街化될 지역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침수될 低地를 미리 취득하여 多목적 遊水地로 하고 평상시는 公園綠地와 治水를 겸용시키는 방안을 서울에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漢江의 고수부지가 정비되고 녹색 우거진 시민의 레크리에이션의 터전으로서 이용되고 한발짝 低水路岸에 들어서면 오염된 폐기물이나 汚水가 없는 사랑스러운 河川으로 漢江을 소생시키기 위하여는 고수부지의 공원화만이 아니라 低水路흐름 자체에도 고기떼가 사는 살아있는 漢江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오염된 漢江을 복원하는 것은 쉽지않다. 여기에는 방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북지국가를 지향하는 이마당에, 또한 전서울 시민이 강력한 공해대책을 요망하는 이마당에 정부 당국의 우선적인 財政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하천환경을 개선한 본보기로 英國「런던」의 「템즈」강, 美國「보스턴」의 「차루즈」강, 「뉴욕」의 「허드슨」강, 「파리」의 「센」 및 「로누」강, 伊太利「푸로렌즈」의 「아루노」강 등을 들 수가 있겠다.

1983년도 상반기 83. 4. 1~83. 9. 30 일본방문연구지원안내

1. 목 적

- 과학기술에 관한 최신동향학과 선진지식 습득
- 상호 밀접한 접촉을 통한 연구협력과 자료 및 정보 교환

2. 지원내용

파견국에서 왕복항공료를, 접수국에서 체재비와 의료 및 사고보험금을 부담

3. 지원분야

자연과학분야

4. 사업형태

가. 단기방문 : 4개월까지임

나. 장기방문 : 6개월—1년까지임

5. 신 청

가. 방문자는 상대측 초청자와 사전 접촉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영문신청서 각 5부로서 신청하여

야 함.

나. 제출시기

- 1차 : 매년 3월 1일—15일
[방문시기 : 그해 10.1—이듬해 3.31까지]
- 2차 : 매년 9월 1일—9월 15일
[방문시기 : 이듬해 4.1—9.30까지]

6. 심사·선정

한국과학관 계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함.

7. 구비서류

방문연구계획서(소경양식) 각 5부

9. 기타 방문사업

미국립과학재단(NSF), 불란서국립과학연구센터(CNRS), 독일연구협회(DFG) 등과도 과학협력양해각서를 교환하여 상기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니 미·독·불란서 방문연구를 희망하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